



세계가 궁금해하는 K-원전, 한국의 원전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다

- 산업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NEA 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
 - OECD 국제원자력기구(NEA), 내년도 행사 공동개최국으로 한국 발표
 -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행사 이후 한-불 핵연료·공급망 점검 회의도 가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19(목)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역량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지는 본 행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은 글로벌 원전 확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문은 탄소중립 달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전의 기여도를 재확인하며, 특히 글로벌 원전 확대를 위해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촉진, 인허가 절차 가속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다방면에서 국제 협력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끝으로, OECD NEA는 내년도 원자력 장관회의 공동개최국으로 한국을 발표하였다. 맥우드 사무총장은 “한국의 원전 분야 성과는 타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이며, 한국을 차년도 글로벌 원전 확대 논의를 이끌어갈 책임자로 평가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 9월 개최될 3차 원자력 장관회의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호현 실장은 9.20(금) 프랑스 기업 Orano(우라늄 개발), Framatome(핵연료 제조)과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우라늄 정광, 변환, 농축 및 핵연료 제조 등 공급망 쏠 주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담당 부서	원전 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320)
		담당자	사무관	강지민 (044-203-532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